

2024.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 〈개신교인의 정치문화 형성과 지형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백광훈 (을지대학교, 교목, 초빙교수)

I. 서론

II. 〈개신교인의 정치문화 형성과 지형 조사〉 개요

III. 〈개신교인의 정치 지형 조사〉 주요 결과 분석

1. 신앙관과 이슈에 대해
2. 정치 이슈에 대한 인식 스펙트럼: 12.3 비상계엄, 서부지원 폭력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3. 미디어와 정치적 인식지형의 상관성에 대해
4.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5. 민족주의와 기독교

IV. 인식조사 결과와 한국교회의 과제

1. 신앙-정치 이념 간, 다양한 인식 스펙트럼의 실제
2.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3. 하나님 나라 참여로서 교회의 정치적 실천: 공동선(common good)의 함양

V. 결론

• ABSTRACT •

The Assignment of the Korean Church After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f December 3, 2024: Focusing on the report <Survey on
the Formation of Protestant Political Culture and Topography>

Chaplain, Visiting Prof., Gwang-Hoon (Eulji University)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South Korea underwent a turbulent political transition marked by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upholding the impeachment, and the subsequent elec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 During this period, Korean Protestant churches were increasingly perceived as politically aligned groups, often associated with anti-impeachment rallies or partisan agenda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actual political perceptions within the Korean Protestant community by analyzing survey data gathered in the aftermath of the December 3 crisis. The findings reveal a diverse spectrum of political consciousness and faith-politics typologies among Korean Protestants, challenging monolithic representations. This paper critically engages with the narrative promoted by far-right Christian groups that equate Christianity with liberal democracy, arguing that such a conflation risks subordinating Christian faith to political ideology. Instead, this study proposes that Christian confession of the Kingdom of God does not imply political neutrality or apolitical disengagement, but rather calls for ethical participation in politics grounded in the pursuit of the common good. Consequently, this paper advocates for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ly informed ethical framework and a concrete ecclesial manual to guide Christian political engagement rooted in public responsibility and the promotion of justice and peace.

Key words: Martial Law, Korean Protestantism, Political Perception, Far-Right Christianity, Liberal Democracy, Common Good

I. 서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사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재명 대통령 선출이라는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정치적 극우라는 인상을 주며 교회 안팎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당시 한국교회에 대한 보도를 보면, “한국 교회는 왜 극우 집회 주도할까”¹⁾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²⁾ “극우 세력 선동의 중심에 선 개신교”³⁾ 등,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달랐고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악화와 함께, 대사회적 선교역량 약화를 가져오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교회의 극우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퇴진 반대 집회와 이후 등장한 문제인 정권 출범 이래 전개된 태극기 집회 이후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으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그룹과,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2024년, 12.3 계엄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개신교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연구로, 「전광훈의 개신교 지지자들」⁴⁾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⁵⁾,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

1) 시사N, “한국 교회는 왜 극우 집회 주도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2>, 2025.06.30. 접속

2) 한겨레,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958.html, 2025.06.30. 접속

3) 뉴스엔조이, “극우 세력 선동의 중심에 선 개신교”,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29>, 2025.06.30. 접속

4) 김장생, “전광훈의 개신교 지지자들”, 『문화와 사회』, 28(2020), 139-188

5) 정재영, 최경환, 송인규, 배덕만, 김지방, 김현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 개신교 극우 현상의 배경과 형성 그리고 극복』, 서울:IVP, 2021.

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⁶⁾, 「협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협오를 중심으로」⁷⁾, 「문화전쟁의 관점으로 본 한국개신교 근본주의 분석」⁸⁾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엔 2025년 4월 한국기독교윤리학회에서 12.3 계엄이후 극렬화된 한국 개신교 우익 현상에 대해 〈광장으로 나온 기독교〉라는 주제로, 기독교 우파의 파시즘에 대해 분석하였고, 연이은 5월에는 〈한국그리스도인일치포럼, 한국 그리스도교와 극우의 위험한 동행—신학자의 성찰과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 개신교 극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렇듯, 한국 개신교의 이른바 극우화 현상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이후 크게 촉발된 한국교회의 극우 논란 관련, 해당 시기에 형성되어 있던 개신교인의 정치 인식 현황에 조사는 확인된 바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가 극우적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준, 12.3 계엄과 일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관련한 정치적 인지 현황, 그리고 보수/진보를 가름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한국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⁹⁾는 한국교회 구성원의 정치 인식 지형의 실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12.3 계엄과 이후 진행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인식의 실체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6) 진순영, 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257-282.

7) 이지성, “협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협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11-240.

8) 성신형 “문화전쟁의 관점으로 본 한국개신교 근본주의 분석”, 『선교와 신학』 56(2022), 211-238.

9) 「개신교인의 정치 문화형성과 지형조사 보고서」, 2025년 5월, 미간행 조사 보고서. 목회데이터연구소 작성. 이하 “보고서”로 표기한다.

는 이번 12.3 계엄 사건과 이후 전개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 인식 현황을 조사한 “개신교인의 정치 문화형성과 지형조사”의 내용 확인,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 신학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먼저, 개신교회 안에 있는 이슈들을 둘러싼 신앙-정치 유형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 둘째, 극우적 기독교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상관성에 대한 비판적 관계설정의 필요성, 셋째, 하나님나라 참여를 위한 정치,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공동선 증진을 위한 교회공동체의 실천 매뉴얼 필요성에 대해 주장할 것이다.

II. <개신교인의 정치문화 형성과 지형 조사> 개요

조사 설계

구 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1000명(유효표본)	5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0\%p$	해당 없음
조사 기간	2025년 4월 8일 ~ 4월 25일 (총 18일간)	2025년 4월 9일 ~ 4월 10일 (총 2일간)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온라인 조사가 어려운 70세 이상 일부는 종이 설문지를 통해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	모바일 조사(Mobile Survey)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이번 조사의 설문 문항은 크게 신앙관과 이슈에 대한 신학적 입장, 정치 이념 스펙트럼, 정치 이념 형성요인, 교회와 정치의 관계 인식, 교회에서의 정치적 활동, 정치 참여 방식 및 태도, 민족주의와 기독교라는 7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남성이 45.1%, 여성이 54.9%, 연령별로는 19~29세 8.4%, 30대 10.4%, 40대 16.1%, 50대 20.2%, 60대 23.9% 70세 이상 21.0%로 나타났다. 정치 이념 성향으로 ‘매우 보수’(극우) 13.5%, ‘보수’ 22.9%, ‘중도’ 37.8% ‘진보’ 21.4%, ‘매우 진보’(극좌)는 4.3%로 조사되었으며, 신앙 성향으로는 ‘보수’ 39.7%, ‘중도’ 39.2%, ‘진보’는 21.1%로 나타났다.¹⁰⁾

인식 현황 조사의 목적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지형 스펙트럼의 분포에 관한 것이기에, 핵심적인 선행 과정 중 하나인 개별 정치 이념 성향과, 신앙 성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치 성향에 있어서 ‘매우 보수’, ‘보수’, ‘중도’, ‘진보’, ‘매우 진보’로 나누었으며, 신앙 성향에 있어서는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치성향에 대한 응답자의 자의식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치 성향을 구분함에 있어서,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즉 다양한 요인을 결합해 응답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통계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군집 분석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치 성향 유형 중, ‘매우 보수’(극우)만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로 선택한 응답자 중 ‘2024년 1월 19일 서부지법 유치장 사태’를 ‘국민저항권 행사’로 인식한 경우로 제한하였다(‘매우 진보’, 이른바 극좌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매우 진보로 선택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¹¹⁾). 이는 이번 인식 조사가 지닌 개념 규정의 방법론

10) 보고서. 23.

11) 정치적 극우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 성향과 배타적 사회관을 지닌 이념적 경향으로 이해된다. 극우는 종종 전체주의적 파시즘과

적 특징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III. 〈개신교인의 정치 지형 조사〉 주요 결과 분석¹²⁾

1. 신앙관과 이슈에 대해

이번 인식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는 바로 한국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식 지형 실제의 확인인데, 먼저 ‘자신이 신앙적으로 어떤 성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도는 ‘보수’ 39.7% ‘보수도 진보다 아니다’ 39.2% ‘진보’ 21.2% 비율로 응답하였고, 목회자는 ‘보수’(‘매우 보수’ 포함) 52.9%, ‘보수도 진보다 아니다’ 19.1%, ‘진보’(‘매우 진보’ 포함) 28.2%로 답하였다. 특히 목회자가 신앙적으로 성도보다 더 보수임을 드러내는 지표가 보이는데, 이러한 목회자의 이른바 ‘보수화’ 양상은 이후 지속적으로 모든 비교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된다. ¹³⁾

동성애, 동성 결혼 이슈에 대해선 ‘동성애, 동성결혼 둘 다 반대’가 성도

유사한 형태를 띠며, 정치적 반대자와 소수 집단을 배척하고, 강력한 민족 중심주의와 권위주의적 질서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사상의 핵심적 특성은 세상을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다. 극우적 사상을 사회를 ‘우리’ 대 ‘그들로 나누고, 이른바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 규정하여 배제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차이의 인식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비인간화, 혹은 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종종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며, 제거하거나 억압해도 무방한 존재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극우의 논리는 치명적인 폭력의 토대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은 단순한 적대적 타자가 아니라, 쥐나 뱀, 기생충 같은 혐오의 상징으로 묘사되었고, 이러한 이미지는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극우주의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와 타자 혐오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극우 세력은 인종적·종교적 소수자, 이민자, 성소수자, 여성운동가 등 다양한 집단을 ‘우리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 정경일, “교회의 두 길: 기독교 국가와 하나님/하느님나라”, 『한국 그리스도교와 극우의 위협한 동행—신학자의 성찰과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집, 6.

12) 조사 개요에서 이 조사는 7가지의 범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으나, 지면 관계상, 그리고 논문의 주제와 한정하여 5가지 범주로 축약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3) 보고서, 23.

76.4%, 목회자 92.6%로 나타났고, 특히 70세 이상 성도에선 ‘동성애, 동성 결혼 둘 다 반대’에 대해 90.8%가 동의하였으며, 정치 이념상 매우 보수는 87.3%, 신앙 성향상 보수 85.7%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가 정치 성향과 신앙 성향의 보수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성도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52.8%, ‘위협이 된다’ 39.8%, 목회자는 각각, 56.7%, 42.8%로 응답하여,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율이 10명중 4명 정도로 확인될 수 있었다. 특히 (극우) 보수 그룹 전체가 지닌 다문화 가정 유입에 대한 위기 인식이 평균 이상임이 드러났는데, 극우 그룹의 53.2%, 보수의 52.4%가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교회에 위협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경우, ‘장애 인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 ‘장애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에 대해 각각 89.8%, 6.4%, 3.8%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한국 교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정치 이슈별 스펙트럼에 있어서 성도의 경우, ‘개인의 자유 확대’ vs ‘개인의 평등 강화’에서 31.3% vs 56.3%로 평등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극우 성향 성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 확대’가 48.0%(목회자 68.3%)로 나와 평등 이슈(46.4%)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

14) 보고서, 94-96.

15) 보고서, 103.

었다. 이 외에도, ‘기업 자유’ vs ‘기업 규제’에 대해 성도들은 38.9% vs 47.4%(극우 성도는 63.8% vs 33.0%)로 나타났고, ‘북한 정권 붕괴’ vs ‘남북 화해’에 대해 31.4% vs 53.5%(극우 성도 그룹 내 찬성 비율은 61.1% vs 35.3%)로 그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¹⁶⁾

2. 정치 이슈에 대한 인식 스펙트럼: 12.3 비상계엄, 서부지원 폭력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먼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어디에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도는 ‘매우 보수’ 10.0%, ‘보수’ 26.4%,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37.8%, ‘약간 진보’ 25.75, ‘진보’ 4.3%로 응답했고 목회자는 각각, 11.8%, 34.3%, 20.3%, 29.6%, 4.1%로 답했다. 정치적 이념이 극우적으로 분류되는 성도와 목회자들을 살펴보면, 70세 이상(40.4%,)과 중직자(안수집사, 권사, 장로 포함, 55.1%)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도의 경우, 이렇듯 교회 오퍼니언 리더들의 비중이 큰 점은 교회 안 정치 이념 지형의 스펙트럼의 지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특정 정치 이념이 과잉 대표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이유로 추정된다.¹⁷⁾ 특히 극우적 성향을 지닌 목회자의 경우는 시무교회 100명 미만이 88.1%로 나타났는데, 목회자의 경우, 시무 교회 규모가 목회자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동시에 선행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신념과 시무 규모와도 어떤 상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시무교회의 규모와 정치적 이념의 상관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¹⁸⁾

16) 보고서, 32.

17) 보고서, 23, 28.

18) 보고서, 28. 100명 이하 소형교회의 목회자가 극우적 성향을 지니는 목회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소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 양극화로 인한 교인 감소와 교회 전반의

2024.12.3 비상계엄조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성도 74.2%, 목회자는 78.9%는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견해는 불과 18.0%(목회자 18.8%)로 나타나 대다수는 비상계엄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치이념 성향상 극우 그리스도인은 77.7%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극우 성향 목회자 역시 86.4%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극우 성도와 목회자는 비상계엄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¹⁹⁾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동의한다'가 성도 69.0%, 목회자 69.7%로 나타났는데, 계엄사태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과 비추어보면 그 찬성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상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평균적으로 5.2%(성도)와 9.2%(목회자) 정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우 보수, 즉 극우 그룹의 85.3%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진보나 매우 진보 그룹은 각각 94.7%, 96.5%로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극우와 극좌 집단의 대비가 극명함을 보여주었다.²⁰⁾

특히 서부지원 폭력사태에 대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70.2%(목회자 83.2%)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내부로 들어가면, 정치이념상 매우 보수, 즉 극우로 분류된 이들 100%는 서부지원 폭력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보다, 국민저항권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그리스도인 80.0%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신앙 성향상 보수라고 답한 이들의 경우,

영향력 감소를 체감하기 쉽고, 그러한 실존적 어려움들이, 한국교회, 혹은 기독교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간주하게 되는 극우적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19) 보고서, 46-48.

20) 보고서, 49-51.

54.7%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고, ‘국민저항권’의 경우는 33.8%로 조사되었다. 목회자의 경우도, 정치성향을 매우 보수로 인식하고 있는 극우 그룹 100%가 서부지원 폭력 사태를 ‘국민저항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²¹⁾

그렇다면, 탄핵 관련 찬반 집회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도의 경우 ‘반대한다’ 62.5%, ‘찬성한다’ 18.1%, ‘모르겠다’ 19.4%, 목회자는 67.7%는 ‘반대’, ‘찬성’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즉 탄핵 반대에 찬성 비율은 18% 내외로 나타났고, 보수는 탄핵 찬성이 20% 수준인데 비해 극우는 찬성이 80% 내외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반면,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반윤 집회)에 대해선, 성도는 ‘반대’가 35.9%, ‘중도’ 24.3%, ‘찬성’ 39.8%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경우는 ‘반대’ 41.0%, ‘중도’ 18.0%, ‘찬성’ 41.0%로 나타났다.²²⁾

이로써 각 사안에 대해 성도들이 지닌 세 종류의 인식 층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보편적인 반대(성도 74.2%), 그리고 그보다 조금 찬성 비율이 낮은 탄핵 찬성 비율(성도 69.0%),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찬성 비율보다는 더 낮은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찬성 비율(62.5%)로 그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친윤 집회(윤석열 탄핵 반대집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 한하여 물은 결과, 친윤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찬성률은 성도가 15.5%, 목회자 15.6%로 나타나 실제 참여율은 15%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21) 보고서, 52-54.

22) 보고서, 180-183.

반윤 집회에 긍정 응답을 보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는가를 물은 결과, 성도는 찬성률 9.5%, 목회자는 6.8%로 나타나 이른바 이념형에서 행동형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보수’가 ‘진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³⁾

3. 미디어와 정치적 인식지형의 상관성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미디어와 정치적 인식형성의 상관성에 대해 추적하고자 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들이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보면, ‘언론’에서 받는다가, 성도 60.4%, 목회자 64.4%로 언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의 경우는 ‘유튜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6%).²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은 영역을 순서별로 나열해보면, 성도의 경우, ‘언론’ 33.1%, ‘부모님’ 13.1%, ‘책’ 10.1%, ‘친구’ 8.8%, ‘유튜브’ 7.7%,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교회설교/교인’이 4.2%, ‘형제자매 등 가족(부모님 제외) 4.1%, ‘SNS’(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5%, ‘정치 집회’ 2.1%, ‘기타’ 7.0%로 나타났다. 목회자는 ‘언론’ 24.9%, ‘책’ 24.5%, ‘유튜브’ 11.4%, ‘부모님’ 9.9%, ‘교회 설교/교인’ 5.5%, ‘친구/지인’ 4.7%, ‘SNS’ 4.3%,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3.0%, ‘형제자매 등 가족(부모님 제외) 1.8%, ‘정치 집회’ 0.7%, ‘기타’ 9.3%로 나타났다.²⁵⁾

이에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은 1,2,3순위를 보면, 성도는 ‘언론’, ‘유튜브’, ‘지인’이 각각, 60.4%, 27.9%, 26.1%로, 나타났고, 목회자는 ‘언론’, ‘책’²⁶⁾, ‘유튜브’가 64.4%, 49.1%, 36.8%로 나타났다. 특히 극우 성향

23) 보고서, 186-189.

24) 보고서, 73-79.

25) 보고서, 55.

26)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일반적으로 의미에서 일반 서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을 지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체는 다름 아닌 ‘유튜브’로 나타났는데, 극우 성도는 43.6%, 극우 목회자는 54.8%로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정치 유튜브 시청과 관련하여, 성도는 43.9%, 목회자는 53.5%로,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정치 유튜브 시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 성향의 성도들은 78.2%가 정치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시간과 관련해서는, 극우(92분)와 극좌(95분)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튜브가 이념 강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목회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목회자의 경우, 정치 성향상 ‘매우 보수’, ‘보수’, ‘중도’, ‘진보’, ‘매우 진보’별로, 각각, 62분, 62분, 40분, 56분, 84분으로 나타났다.²⁸⁾

‘다음 정치관련 유튜브 채널 가운데 귀하/목사님께서 평소 가장 많이 시청하는 채널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라는 항목에서, 극우 성도 : 성장경TV(33.3%) > 신인군국방TV(31.8%) > 배승희변호사(31.3%) > 고성국TV(24.9%) > 그라운드C(21.5%) > 신의한수(21.0%) > 전광훈TV(18.6%) > 진성호방송(15.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극우적이라고 답변한 목회자들의 경우 그라운드C(42.2%) > 성장경TV(36.3%) > 배승희변호사(30.9%) > 신인군국방TV(30.3%) > 책읽는 사자(23.0%) > 고성국TV(21.4%) 순으로 응답하였다.²⁹⁾

마지막으로 정치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를 대상으로 ‘매우 진보’에서 ‘매우 보수’까지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 순위로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례상, 일반적 의미에서의 도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7) 보고서, 55-63.

28) 보고서, 76-78.

29) 보고서, 79.

는 성도는 ‘뉴스 공장’ 36.2%, ‘뉴스 타파’ 32.2%, ‘매블쇼’ 23.7%였으며, 목회자는 ‘뉴스공장’ 40.0%, ‘뉴스 타파’ 26.0%, ‘매블쇼’ 23.7%의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 점에서 유튜브 채널을 기준으로 하면,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보수 지향의 채널보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⁰⁾

4.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한편 교회와 국가/정치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절반 이상(52.4%)으로 나타난 반면 목회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9.9%로 성도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극우성향을 보이는 성도들에서는 정치적 의견 제시 가능성이 57.7%인 반면, 목회자인 경우 91.7%로 나타나, 일반 평균만이 아니라, 정치적 적극 관여 집단에서도, 목회자들의 정치적 개입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기독교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도에 비해 목회자의 동의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성도 34.3%, 목회자 60.3%). 극우적 정치 성향을 지닌 성도와 목회자의 경우도 각각 72.3%, 목회자는 95.2%로 목회자의 동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¹⁾

‘귀하/목사님께서서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갈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도는 46.3%, 목회자는 72.0%로 목회자의 인식과 우려가 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성도의 경우 정치적으로 극우인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30) 보고서, 위의 쪽,

31) 보고서, 1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매우 보수 24.0%, 보수 43.8% 중도, 43.0%, 진보 66.5% 매우 진보 59.3%로 조사되었다).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극우 성향의 목회자는 25.5%만이 교회가 보수 진보 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회가 보수 진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의 84.6%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역할은 공의를 세우는 것이므로 그 갈등을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로 인식하고 있었다.³²⁾

교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목회자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부분에서 ① 시무 교회 밖의 개인적인 모임, ②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 ③ 시무 교회 교인들과의 모임, ④ 설교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가능하다는 문항에 대해 각각 42.0%, 23.2%, 19.2%, 13.0%의 비율로 답하였다. 설교 중, 정치적 발언 가능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 성도는 ‘구체적인 현실적 이슈(대북 문제, 외교 문제, 세금 문제, 대통령 탄핵 문제 등)에 대한 발언 가능’ 58.3%(목회자 58.1%), ‘정치적 문제에서 성경적 원칙만 말해야 한다’ 34.8%(목회자 38.0%),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6.9%(목회자 3.9%)로 응답하여, 성도와 목회자간의 견해가 대동소이함을 보여주었다.³³⁾

목회자를 향한 질문으로,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난 1년간 다음의 경우에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적 집회 참석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를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귀하 교회에서 지난 1년간 담임목사님이 다음의 경우에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적 집회 참석을 권유한 적이

32) 보고서, 123-126.

33) 보고서, 134.

있습니까'에서도 '설교', '기도', '광고'의 영역에서 성도는 각각 11.0%, 15.6%, 7.2% 목회자는 19.3%, 34.0%, 14.9%의 긍정 응답률을 보여, 성도들보다 목회자의 응답 비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목회자들이 설교나, 기도, 광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스스로 인식한 반면,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³⁴⁾

이는 다음의 응답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목사님의 정치적 발언이 성도들의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영향을 미칩니까'라는 질문에서 정치적 발언을 교회에서 경험한 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0.5%, '영향을 미친다' 34.2%, '잘 모르겠다' 5.3%로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23.8%, 72.1%, 4.1%로 나타난 바, 목회자 자신은 자신의 정치적 발언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성도들의 인식은 그와 같이 않음을 보여주었다.³⁵⁾

그러면 '지난 1년간 귀하/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정치적인 내용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성도는 '있다' 27.2%, '없다' 72.8%로, 목회자는 '있다' 38.1%, '없다' 61.9% 나타나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교회의 3분의 1정도 내외로, 교회에서 정치적 내용의 기도가 행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성도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가 46.6%, '긍정적 영향은 27.3%에 불과했으며, 목회자 역시 '부정적 영향이 56.4%, '긍정적 영향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극우 성향을 지닌 성도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가 64.0%로 나타나 그 인식의 괴리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매우 진보'적 성향을 지닌

34) 보고서, 137.

35) 보고서, 146.

성도들 역시 43.9%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극우적 성향을 지닌 목회자 61.1%, 극좌적 성향을 지닌 목회자 54.3%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식은 극단적 정치 성향을 지닌 성도나 목회자가, 예배와 같은 현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기도나 설교가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도의 경우에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데에 교회가 나서게 한다’,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복음을 지킬 수 있다’ 항목에서 각각 56.8%, 34.8%, 8.3%로 나타난 반면, 목회자의 경우는 72.5%, 17.2%, 8.6%로 집계 되,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도들은 ‘구국’이, 목회자는 ‘계몽’이 우선적 관심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³⁷⁾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교회 성도들과 정치적인 내용을 유튜브나 SNS 메시지를 통해 받거나 전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도는 ‘있다’ 16.8%, ‘없다’ 83.2%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성향상 극우인 경우는 33.5%가 그러한 콘텐츠 공유 경험이 있다고 밝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콘텐츠 확산에 매우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⁸⁾

5. 민족주의와 기독교

‘한국교회 일각에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성도는 35.9%, 목회자는 46.8%로 나타났다. 하지만 ‘찬성’ 의견 역시 성도, 30.9%, 목회자는 27.1%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로 기독교

36) 보고서, 143-152.

37) 보고서, 149.

38) 보고서, 158.

교 국가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극우 그룹에서는 51.4%가 ‘찬성’ 응답률을 보였다). 기독교 국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성도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어서’가 41.1%, 목회자는 65.1%로 나타나, 법과 제도의 영역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⁹⁾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성도는 ‘전혀 필요없다’ 38.0%, ‘별로 필요없다’ 27.8%,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8%, ‘꼭 필요하다’ 4.3%, ‘잘 모르겠다’ 9.2%로 응답하였다. 목회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더욱 낮아, ‘필요하지 않다’ 71.7%, ‘필요하다’ 27.1%, ‘잘 모르겠다’ 2.1%로 나타나, 기독교 정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성도 목회자 구분 없이 대다수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마지막으로 “귀하/목사님 교회 교인을 정치적으로 구분한다면 ‘극우’/‘극좌’에 속한 교인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도들은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에 대해 각각 13.2%, 16.8%, 13.8%, 11.0%, 45.3%로 응답했고 목회자의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29.9%, 22.2%, 7.1%, 23.2%, 17.6%로 응답했다. 특히 ‘50% 이상’이라고 답한 성도 비율이 45.3%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소속 집단인 개신교 집단에 대한 극우 인식이 실제 보다, 강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⁴¹⁾

39) 보고서, 192.

40) 보고서, 128.

41) 보고서, 201.

IV. 인식조사 결과와 한국교회의 과제

1. 신앙-정치 이념 간, 다양한 인식 스펙트럼의 실제

이번 인식 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점은, 한국 개신교회안 성도들의 신앙-정치 이념 간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성도의 경우, ‘매우 보수’, 13.5%, ‘약간 보수’ 26.2%,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39.2%, ‘약간 진보’ 16.6%, ‘매우 진보’ 4.5%로 나타났는데, 이른바 극우는 10명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회 안 상당수는 정치적으로 중도적 자기 인식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전통적 이슈에 대한 지표에서도 극우적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조사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 이슈의 경우, 평등과 정의의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압도적인 89.8%의 성도들이 온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유 vs 평등’, ‘기업 자유 vs 기업 규제’, ‘안보 vs 인권’, ‘북한 정권 붕괴 vs 남북 화해’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는 성도의 경우, ‘평등’(56.3%), ‘기업 규제’(47.4%), ‘인권’(47.7%), ‘남북 화해’(53.5%)에 더 많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 안보, 북한 정권 붕괴 등의 가치를 적극 지지하는 보수 혹은 극우의 지표와는 달리, 한국 교회의 평균적 관점은 중도 혹은 진보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 교회 대다수의 의견은 12.3 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개신교 이미지는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을 전면 거부하면서 서부지원 폭

력사태를 국민저항권으로 인식하고 극우적 집단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독교 탄핵반대집회의 두 축인 전광훈이 주축이 된 태극기 집회와, 또 다른 축인 손현보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의 전국 순회 대규모 집회는 개신교계 주도 집회로서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인식 지형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개신교 담론의 방향이 일방향화 되었고, 다수 교인들이 여러 정치 지향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제 기독교 여론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12.3 계엄이후 전개된 일련의 개신교 우익의 과잉 대표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이슈를 둘러싸고 한국 개신교계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불균형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극우의 과잉 대표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소외 불안 현상인 정치적 포모 현상(FOMO, Fear Of Missing Out)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적극 조명되는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게 되거나 정치적 의사표명에 있어 왜곡된 개입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 공동체 안, 인식의 차원에서 한국 개신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앙-정치 간 상관 유형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할 것이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간 상관성에 대한 유형화 작업을 진행한 바,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관련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유형을 다섯 가지 유형(적대시, 동일시, 종합, 역설, 변혁)으로 나누고 그러한 유형들 안에서 기독교적 입장의 다양성을 정리하였다.⁴²⁾ 니버에 따르면,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형들은 규범적인 것이기 보다는 기술적인 유형으로서 기독교와

42) H. R. Niebuhr, *Christianity and Culture*,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항구적인 인식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신앙과 정치의 인식 영역에 적용한다면, 기독교와 정치가 전혀 무관하거나, 신앙적 관점에서 정치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정치에 대해 회피하고, 철저한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 둘째는, 현실 정치체제와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하는 입장으로 정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인식하고, 체제 내 참여와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 셋째, 정치적 질서 속에 있는 진리를 존중하지만 그 위에 있는 신적 계시를 강조하는 종합형 인식이 있을 수 있다. 넷째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와 속했으면서도 세속 정치 체제에 속함을 인정하면서 책임적 참여와 경계, 복종과 비판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역설적 모델,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변혁주의적 입장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처럼, 한국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이슈나 현안들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한다. 당면 이슈인 12.3 계엄조치와 탄핵을 둘러싼 입장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재정에 관한 문제들,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기독교의 정치 참여 문제를 둘러싼 입장들은 어느 하나로 일방적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다양한 입장과 조합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 유형에 의한 따른 분류로, 이른바 ‘기독교 극우’ 유형이 이른바 ‘메타분석적 접근’ 방식에 의해 여타 다른 유형처럼, 동일하게 존재론적 신앙-정치 유형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일의 히틀러 집권 당시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독일 교회 구성원들의 연맹⁴⁴⁾, 그리고 최근 극우 포퓰리즘인 트럼프주의

43)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역사상의 그 어떤 문화적 인식 유형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 유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듯이 그 어떤 신앙과 정치에 대한 입장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유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와 결합하여 급부상한 종교적 정치운동으로 알려진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의 유형⁴⁵⁾조차도 동일한 선상에서 기독교의 정치적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바, 존재론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다양한 인식 유형의 인지 작업은,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윤리적 행위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에 관한 입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양한 입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공존은 어려워진다. 한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입장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성찰적 자세를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실존하는 다양한 정치 지형 스펙트럼에 대한 인식은 개신교인의 정치적 실천의 방향성에 있어서 독단적 인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적 기반이 된다. 특히 극우적 주장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들의 자기 비판적 인식은 바람직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극우적 기독교의 주장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라는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번 인식 조사에서도 그러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극우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듯,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이며, 특히 이주민에 대

44) 고재길, “히틀러의 파시즘과 본회퍼의 저항”, 『한국 그리스도교와 극우의 위험한 동행—신학자의 성찰과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집, 28-30.

45) 정경일, 위의 논문, 9.

한 입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주민 유입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기독교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익, 혹은 극우적 개신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옹호를 표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우익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본래적 성격과는 다르게 매우 배타적인 성격이 매우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⁴⁶⁾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보듯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 또, 비상계엄에 대한 찬성이나, 서부지원사태에 대해 그것을 자유로운 국민저항권으로는 보는 입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나, 보편적 인권과 다양성 존중,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의미하는 일반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선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광장에서 표현되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는 배제적 성격이 강하고, 역사적으로 국수주의적 혹은 민족주의적 신앙과 연결된 한국의 개신교 보수 신앙의 맥락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부 보수주의 신학은 1980년대 이후 반공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등장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좌파=공산주의=전체주의=동성애 옹호’라는 도식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성소수자나 이주민 같은 ‘다른 존재들’을 공격적으로 배제하는 논리를 펼쳐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⁴⁷⁾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로 정식화하며, 차별

46)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강조되는 점이 다르며, 헌법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통치 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7) 성신형, 위의 논문, 211-238.

금지법 제정 반대를 국가 체제 수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자유민주주의’는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기독교적 가치를 지킬 자유’라는 선택적 자유 개념으로 쓰인다고도 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적극적 배제의 논리를 강력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특별히 오늘날 현실화된 개신교 인구의 약화 및 영향력 감소의 주된 원인을, 좌파나, 공산주의와 연계된 동성애, 페미니즘, 이슬람 이주민 등과 관련된 이슈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고, 이는 한국 개신교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치 이념 지형 형성 및 변화의 추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극우적 기독교가 강력하게 동치 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체제 이념을 상징하는 용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체제 수호라는 명분 아래 이를 극단적으로 동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사용 맥락을 구분해볼 때 자유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둘러싼 이해는 두 방향으로 갈린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아 민주주의를 이를 구현하는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본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시각으로, 정치공동체의 자율적 자기통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여기며, 개인의 자유를 그 실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한다. 주목할 점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에서 이 두 관점을 어느 하나로 환원하기보다는, 상호 긴장 관계 속에 공존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율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⁴⁸⁾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일반적으로

48) Martin Ryle, *Liberalism and Democracy*,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는 손과 장갑처럼 서로 꼭 맞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적어도 일부 해석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헌정 체제는 자유와 인간 존엄에 대한 헌신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기독교의 신념을 반영하고 구현하는 정치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에 수반되는 헌법적 법질서—여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타락하고 일탈된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잘 허용해주는 정부 형태로 간주되기도 한다.⁴⁹⁾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크레이낙(Robert Kraynak)은 “교회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거의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가장 잘 부합하는 정부 형태는 민주주의라고 믿는다”고 분석한다.⁵⁰⁾ 그러나 크레이낙은 이러한 견해야말로, 다분히 근대적 관점이며, 오랜 세월에 걸친 기독교적 전통, 성서, 사상, 실천의 모습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어떤 기독교인들과, 어떤 경우에는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수용하는 해석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며 때론 심지어 적대적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⁵¹⁾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와의 상관성에 대한 이러한 양극적 입장은 스텐리 하우어워스(S. Hauerwas)와 칼 바르트(K. Barth)의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하우어워스는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대립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석한다.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세속 국가에 대립하는 ‘정치공동체(polis)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우어워스에게 기독교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political) 성격을 지닌

49) Steven D. Smith, “Christian and/as Liberals?”, Notre Dame L. Rev. 98(2003), 1497-1498.

50) Robert P. Kraynak, *Christian Faith and Modern Democracy: God and Politics in the Fallen Worl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9-44.

51) 위의 책, 9-44

다. 왜냐하면 교회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난 큰 변화에 동의해 살아가는 새 백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⁵²⁾

교회란 “복음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하되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며, ‘대항 문화적 사건’에 적극 참여하는 독자적 삶의 방식을 갖춘 공동체적 실체, 즉 ‘새로운 폴리스’라 할 수 있다.⁵³⁾

하우어워스는 보수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 모두가 세속과의 타협, 즉 “일종의 콘스탄틴적 타협”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들 모두가 “교회의 일차적 목적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분석한다. 물론 하우어워스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토대 위에서 있음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소외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⁵⁴⁾ “민주주의의 일차적 실체는 개인이며, 사회의 주된 존재 이유는 개인의 독특성을 지원해 주는” 것에 머물고 만다. 개인적 가치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며, 그 안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실상 “우리 자신의 욕망에 따른 독재”로 전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각 개인이 외부의 규율보다는 자기 자신

52)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사람, 2018), 43.

53) 위의 책, 51.

54) 하우어워스는 ‘자유주의’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특수성의 억압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하려는 계몽주의의 기획으로 탄생한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Stanley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War and Survival in a Liberal Society*(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18.

에게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체제로 이해될 수 있다.⁵⁵⁾ 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라 조직된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적 가치에 우선시키며, 개인 이익의 최대화를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흐름 속에서 개인 간의 충돌과 긴장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을 자기중심적 태도, 고립과 피상적 관계망, 그리고 왜곡된 소비 중심적 가치관으로 몰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사회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⁵⁶⁾

그렇다면 미국 교회는 어쩌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 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일을 교회의 중심적 사명으로까지 오해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한 미국 수정헌법 비준 시점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제도화하였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산물인 ‘종교의 자유’를 통해 교회와 국가 사이의 역사적 긴장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양자 간에 필수적인 비판적 거리감과 긴장 의식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중립적인 체제일 뿐 아니라 교회에 우호적인 구조를 지닌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⁵⁷⁾

이러한 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비판과는 반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바르트(K. Barth)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교회의 기여

55)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54f.

56) 위의 책, 78

57)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백지운 역. 『교회의 정치학』 (서울: IVP, 2019), 99f.

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바르트의 신학은 하우어위스 윤리가 예수 내리티브와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과 유사하게, 일관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틀 안에서 전개된다. 특히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방향을 취한다.⁵⁸⁾

먼저, 바르트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종종 그가 국가와 교회를 상호 ‘대립적’ 관계로 간주한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민주주의적 국가 형태를 지향하는 정치적 경향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그는 “복음으로부터 도출되는 그리스도교적·정치적 방향과 노선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국가라고 부르는 측면을 향한 경향을 지닌다”고 언급한다.⁵⁹⁾ 바르트 사상에서 교회와 국가는 상호 구분되는 영역으로 존재하지만, 양자 간의 관계는 단순한 분리나 대립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도성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존재로서, 현세적 국가가 인간 존재의 궁극적 완성이나 최종적 질서가 아님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상의 도성 즉 국가에 대한 극단적 부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정서”⁶⁰⁾를 지닌다고 말한다.

바르트의 신학적 사유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그의 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 고유한 자율성을 지닌 공동체로서 상호 침해 없이 분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복음이

58) 이은창, 이용주,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계 연구-하우어위스와 바르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1(2021).12.

59) Karl Barth, “Rechtfertigung und Recht”,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Zürich: TVZ, 1989), 75f.

60) 위의 책, 25.

이 땅에 선포되도록 협력할 수 있다.

바르트는 이러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때, 각 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점에서 그의 민주주의의 이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국가의 사명이 교회의 설교 사역을 억압하거나 간섭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바르트는 교회가 “자신의 고유한 공간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 곧 “국가를 위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교회는 국가의 본래적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직접 구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도구일 뿐이다.⁶¹⁾

따라서 교회가 복음의 자유로운 선포를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유지하고 확립할 때, 국가는 그 본연의 한계 안에 머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바르트는 모든 시민이 책임 있게 참여하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교회가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길임을 역설한다.⁶²⁾

바르트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핵심 원리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시민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를 바탕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정치 질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⁶³⁾ 그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정치적 이상이 교회의 정치적 관심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특정한 제도적 형태의 민주주의—

61) 위의 책, 46.

62) 위의 책, 44.

63) 이은창, 이용주, 위의 논문, 92.

예컨대 스위스, 미국, 프랑스 등의 모델—를 교회가 이상적으로 지지해야 할 정치 체제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바르트의 신학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질적 단절’(qualitative distinction)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한다.

바르트는 복음이 세속 정치와 직접 동일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이 교회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끄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복음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이 신앙하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이 세상 속에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이상은 교회가 시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신학적으로 정당화된 방향성’의 구체적 예시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들은 교회가 형성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서 기능한다. 곧, 바르트에게 이러한 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이 아니라 그 도래를 유비적으로 암시하는 ‘상응적 징표들’(analogical signs)로 제한적으로 이해된다.⁶⁴⁾ 정치 체제가 복음의 실체가 될 수는 없지만, 복음에 의해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과 소망을 토대로 시민 사회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결국 바르트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교회가 절대화해야 할 정치체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신학적-정치적 “방향 노선”⁶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교회와 자유민주주의에 관련한 하우어위스의 ‘대립적’(confrontational) 입장이건, 바르트의 ‘기여적’(contributinal) 관점이건 기독교는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 될 수

64) Karl Barth, 위의 책, 72.

65) 위의 책, 74.

없으며, 그 관계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점에서 이른바 기독교 극우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로 기독교적 정체성을 동치시키거나 환원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기독교 정치 유형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하나님 나라 참여로서 교회의 정치적 실천: 공동선(common good)의 함양

마지막으로 이번 정치 인식 조사가 함의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참여로서의 현실 정치 체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정치의 관계에 대해 성도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절반 이상(52.4%)으로 나타난 반면, 목회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9.9%로, 성도와는 상반되었는데, 정치적 극우 성향의 성도는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57.7%), 극우 성향 목회자는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1.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⁶⁶⁾

특별히 극우적 정치성향을 지닌 목회자들에게서 감지되는 정치적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극우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이해, 이를 정치 체제 안에 구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다는 논리적 연계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극우적 입장을 지닌 이들이 지향하는 어떠한 정파의 정치 지향 체제나. 이념으로 국한하여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6) 보고서, 115.

보수, 중도, 진보, 극좌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이념, 정당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체제와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적 반영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려는 부분적 실현 의지에 머문다. 어거스틴(St. Augustine)이 주장했듯이, 인간 공동체의 공적인 선의 성취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⁶⁷⁾

그런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직한 정치적 참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되는 영역을 뜻하며 그것이 세계 가운데 현존함을 의미한다. 창조 이후에 인간의 사고, 손길이 거쳐 간 모든 영역,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예술, 그리고 정치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통치하며, 결국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개인과 사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평화, 정의, 자유, 건강, 사랑 등의 가치 실천과 관계가 있다.⁶⁸⁾

이 점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현실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독교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고, 건강한 신앙인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정치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실천적 참여의 원칙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따르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며, 온전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특정한 이들과 집단이 아닌 소외된 자

67) 이창호, “기독교의 공적 참여 모형과 신학적 ‘공동 기반’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31(2015), 68.

68) Robert Banks & Paul Stevens,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IVP, 1997), 18.

와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동선(common good)을 구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 속에 공동선을 함양토록 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개인과 집단과 이기심으로부터 파생하는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문화를 보호하려는 신앙인들의 구체적 개입을 뜻한다.⁶⁹⁾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치적 참여의 지향점은 무조건적인 침묵이나 무관심, 혹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과 결탁하여 교회를 도구화하거나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신앙의 이념화라는 좌우 양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신앙 공동체 안의 통합을 모색하고, 이 세계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 참여라는 공동의 기반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 존엄성,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적 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치 실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식의 차원에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설교, 성경공부 등을 통해 “정치=세속” 혹은 “보수=기독교”라는 극단화된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공동선’을 위한 책임이며, 타자와 약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임을 공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되며, 예언자적 비판 정신을 유지하는 책임적 참여의 방식을 실천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정치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설교와 교육에서의 이념적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신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9)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7), 19.

무엇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중도 성향을 포함하여 교회 내 다양한 정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내 안전한 정치 대화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소그룹을 운영하고, 극우나 극좌의 정치 성향을 지니는 경우, 정치 성향 형성에 유튜브가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기에, 유튜브 기반 정보에 대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기도나 설교 중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에 대한 목회자-성도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예배 언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설교에서 다루는 공공 이슈에 대한 신학적 균형 지침” 또는 “공적 기도의 정치화 방지 원칙”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촉발된, 개신교 극우 논란과 관련하여 실시된 한국교회의 정치인식 지형의 실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었다.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언론에서 조명되거나 혹은 기독교 공동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교회를 전반적으로 정치적 '극우'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13.5%로 추정되는 이들만이 극우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는 한국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신앙과 정치 인식의 다양한 관계 유형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신앙-정치 유형이 지니는 상대적 적절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는 기독교 윤리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극복해야 할 한국의 극우적 기독교의 정치적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의 극우 기독교가 주장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지향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체제의 가치 지향점과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동치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하우어워스와 바르트의 통찰을 통해 비판적으로 음미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으로서의 교회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 입장의 상대적 적절성의 기초아래, 특정 체제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 존엄성,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적 선의 형성으로서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실천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이미지 악화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기독교 사회윤리적 실천 방안들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

1. 본 논문이 1차 텍스트로 삼고 있는 “개신교인의 정치 문화형성과 지형조사 보고서”는 제한된 시기와 조사군의 인식상황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인식주체가 지닐 수밖에 없는 편향성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각각의 정치 유형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성 문제이다. 특히 서부 지원 사태를 국민저항권으로 인식한 경우만을 극우로 규정한 것, 그리고 나머지 유형은 응답자의 자의식을 기반으로 분류한 것은 본 조사가 지니는 한계로 보인다. 3. 기독교인의 정치 인식에 대해 지표로 포착되기 어려운 질적 연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성된 극우적 기독교인의 생각을 반영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추후 유사한 인식 조사시 목회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국교회의 정치 인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과제가 보다 실천적으로 분석되고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개신교인의 정치 문화형성과 지형조사 보고서”, 기간행 여론조사 보고서. 목회데이터연구소. 2025년 5월.
-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7
- 정재영, 최경환, 송인규, 배덕만, 김지방, 김현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 개신교 극우 현상의 배경과 형성 그리고 극복』. 서울:IVP. 2021.
- 고재길, “히틀러의 파시즘과 본회퍼의 저항”, 「한국 그리스도교와 극우의 위험한 동행—신학자의 성찰과 분석을 중심으로」. 2025 제24회 한국그리스도인일치포럼자료집, 22-41.
- 성신형, “문화전쟁의 관점으로 본 한국개신교 근본주의 분석”, 「선교와 신학」 56 (2022), 211-238.
- 이은창, 이용주,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계 연구-하우어위스와 바르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71-100.
- 이지성,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11-240.
- 이창호, “기독교의 공적 참여 모형과 신학적 ‘공동 기반’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31(2015), 65-117.
- 전순영, 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257-282.
- 정경일, “교회의 두 길: 기독교 국가와 하나님/하느님나라”, 「한국 그리스도교와 극우의 위험한 동행—신학자의 성찰과 분석을 중심으로」 2025 제24회 한국그리스도인일치포럼자료집자료집, 4-15.

Hauerwas, Stanley & Willimon, William H.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사람. 2018.

Hauerwas, Stanley, *After Christendom?*, 백지운 역. 『교회의 정치학』, 서울: IVP, 2019.

Niebuhr, H. R., *Christianity and Culture*,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Ryle, Martin, *Liberalism and Democracy*,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Banks, Robert & Stevens, Paul,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IVP, 1997)

Barth, Karl, “*Rechtfertigung und Recht*”,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Zürich: TVZ, 1989),

Hauerwas, Stanley. *Against The Nations: War and Survival in a Liberal Socie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Kraynak, Robert P. *Christian Faith and Modern Democracy: God and Politics in the Fallen Worl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뉴스엔조이, “극우 세력 선동의 중심에 선 개신교”, 김장생, “전광훈의 개신교 지지자들”, 『문화와 사회』, 28(2020), 139-188,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29>, 2025.06.30. 접속

시사IN, “한국 교회는 왜 극우 집회 주도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2>, 2025.06.30. 접속

한겨레, 계엄 정권 · 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958.html, 2025.06.30. 접속

논문투고일: 2025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이라는 급격한 정치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으로 대외적으로 인식되었으며,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형성된 한국 개신교인의 정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정치 인식의 스펙트럼과 신앙-정치 관계 유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한국 개신교 내에는 극우적 정치 성향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 인식과 신앙적 해석이 병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특히 극우 기독교 진영이 주장하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동일성' 담론에 대해, 신학적·윤리적 비판이 요청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신앙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탈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선을 향한 윤리적 참여를 요청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 신학적으로 정립된 '공동선 지향의 참여 윤리'와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교회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비상계엄, 한국 개신교, 정치 인식, 극우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